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7월 26일

CUOMO 주지사, 상어 지느러미 판매 및 소유 금지 법안에 서명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소유, 판매 또는 유통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매년 약 7,300만 마리의 상어가 세계적인 상어 지느러미 수요 증가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그 과정이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자연적인 균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으로 뉴욕은 중요한 종의 보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상어를 위해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뉴욕 수역에서 상어의 “지느러미”를 잡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시 말해, 상어를 잡은 뒤 지느러미를 제거하고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조업을 말합니다. 지느러미를 빼앗긴 상어는 아가미로 헤엄치거나 물을 지날 수 없기 때문에 질식사하거나 다량 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지느러미는 아시아 전통 요리인 상어 지느러미 스프에서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법안은 상어 지느러미에 대한 전세계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북대서양에서 가장 풍부한 상어 종인 두 종의 돛발상어의 지느러미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이 재료를 판매하는 시장과 상어 보호의 필요성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상어 지느러미의 경우 예외로 합니다.

현재, 70곳의 상업용 상어잡이 선사가 돛발상어 잡이 면허를 취득했는데, 선사당 일일 3,000 파운드의 상어 잡이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돛발상어는 주로 영국으로 수출되는데 영국의 주요 특산물인 “피시 앤 칩스”에 사용되는 인기 어종입니다. 그리고 상어 지느러미는 아시아로 수출됩니다. 이 밖에도, 뉴욕은 돛발상어를 예외로 상어 판매를 금지하는 최초의 주는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오레곤, 워싱턴 주를 포함해 여러 주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Mark Grisanti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 잡이는 전세계적으로 상어 개체수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뉴욕이 다른 주들과 함께 상어 지느러미의 소유, 판매, 거래를 금지하여 이러한 조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 법안은 현재 주요 대서양 연안

Korean

수입업자인 뉴욕을 상어 지느러미 거래에서 빼냄으로써 이와 같이 잔인한 해양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Alan Maise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 법안을 지지해주신 Cuomo 주지사께 매우 감사 드립니다. 바다에서 해양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환경적 어려움은 없습니다. 상어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는 매우 중요한 상어를 보호하는 장기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에서 상어 개체수를 관리하기 위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뉴욕주 환경보전부(DEC)의 규제기관을 확대하는 법안에도 서명하였습니다.

Phil Boyl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의 잔인하고, 낭비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거래를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에 Cuomo 주지사께서 서명해 주신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는 동물보호인들에게는 큰 승리요, 상어의 비인간적인 처리에 대한 뉴욕의 역할과 전세계적으로 상어 개체수의 심각한 붕괴를 종식시켜줄 큰 조치가 될 것입니다.”

Matthew Titon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어가 대중문화에서는 많은 비방을 받긴 했지만 상어는 중요한 종입니다. 상어는 죽은 바다 생물들을 청소해주고 약한 물고기들을 잡아먹어 질병 확산을 막아주어 안정적인 생태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제정으로 DEC는 건강하고 균형된 해양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